



국내 최초의 단독 오페라 전용 극장인 대구오페라하우스는 총 2620평의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지어진 건물로 유려한 곡선미의 그랜드 피아노를 형상화하고 있다. 사진은 대구오페라하우스 전경 모습.

국내 최초 오페라 전용극장... 도시 랜드마크 '우뚛'



최철의 오페라 오디세이

대구오페라하우스

'그랜드 피아노' 형상화... 수려한 외관
'대구국제오페라축제' 통해 위상 높여
'아시아 오페라 중심도시' 도약 견인
청년예술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효과

필자에게 매년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를 관람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이자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좋은 기회이기도 했다. 지난 10월 28일부터 일주일간 광주시립오페라단의 <라 트라비아타> 작품 준비를 위해 대구오페라하우스를 찾아 심도 있게 이번 축제와 축제가 열리는 오페라하우스를 세밀히 분석하며 광주 '전문공연장 건립(오페라하우스)'과 광주 오페라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대한민국 유일의 제작극장인 대구오페라하우스는 오페라 제작과 공연은 물론 시민을 위한 예술교육프로그램과 성악가를 위한 오픈 스튜디오도 운영되고 있다. 2003년 개관 이래 해마다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를 펼쳐오고 있으며 어느새 아시아에서 가장 주목받는 오페라하우스로 각광을 받고 있다.

대구오페라하우스는 국내 최초 단독 오페라 전용 극장이다. 총 2620평의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지어진 건물로 유려한 곡선미의 그랜드 피아노를 형상화하고 있다.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도록 경쾌한 유리 재질로 외관을 처리하여 공연장에 대한 시민들의 거리감을 대폭 줄임과 동시에 수려한 외관으로 도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극장에 가장 중요한 음향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 극장과 견주어 우월하거나 대등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필자가 경험했던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나 유럽의 로마 오페라 극장을 비롯한 수많은 극장과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등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세계적인 국내외 오페라 연주자뿐만 아니라 이번 <라 트라비아타>를 준비했던 이 지역 음악가들 역시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는 평안함을 주는 음향 상태라고 언급했다. 특히 섬세한 소리까지 아름답게 공명된 자연 음이 모든 관객석에 차등 없이 들려져 대구오페라하우스에 찾은 관객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연주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편의시설 역시 관객에게 큰 만족감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 무대 113평, 측면무대 206평, 후면무대 131평으로 총 450평 규모의 변환 가능한 이동식 무대 시설을 갖추고 있는 대구오페라하우스는 다양한 무대 세팅을 위한 10개의 공연연출용 막과 그 밖에 배경막,



최근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린 '2024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에서 광주시립오페라단의 베르디 '라 트라비아타'가 마지막 폐막작으로 선정돼 공연됐다.

조명 장치, 무대바닥 리프트 장치를 구비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보조무대 9세트, 이동무대 4세트가 각각 있어 공연의 특성과 규모에 따른 연출의 확장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현대식 시설을 통해 다이나믹한 장면의 연출을 위한 빠른 무대 전환과 환상적인 무대 작업을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음은 열악한 우리 지역 현실을 비추어 볼 때 부러울 따름이다. 이 외에도 공연의 규모와 음악에 따라 최대 110인, 평상시 70인의 4관 편성이 가능한 오케스트라 피트를 보유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 무대를 확장하거나 객석 전환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으로 운용되는 오케스트라 피트는 음향의 극대화를 위한 노력이 들어가 있어서 광주의 새로운 전용 극장 건립을 위해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대구오페라하우스 부지는 삼성그룹 발전의 모태가 된 제일모직 공장 터로, 과거 삶의 애환이 담긴 대표적인 장소다. 그리고 오페라하우스와 연계된 공간은 과거 공장 직원 기숙사를 비롯한 주변 건축물을 보존한 상태에서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 역사성을 지키며 더불어 레트로적인 감성을 함께 누릴 수 있게 과거와 현재를 함께 품은 철학적 공간으로 구현되어 있다. 이는 삶을 누리며 즐기는 장소로, 시민들에게 휴식과 이벤트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재탄생된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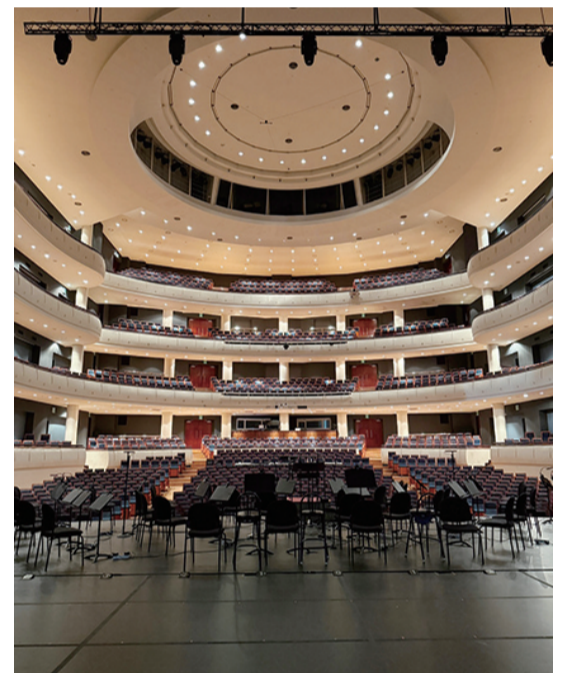
대구 시민들뿐만 아니라 국내외 오페라 마니아의 성지가 되어가고 있는 대구오페라하우스 주변에는 풍부한 숙박시설과 먹거리 촌, 그리고 근접해 있는 다양한 공간들은 새로운 작품이 제작될 때마다, 오페라하우스를 찾는 국내외의 많은 관객을 설레게 한다. 특히, 1달여간 개최되는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는 '유네스코 음악 창의 도시 대구'의 위상과 품격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2002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는 '2015 대표적 공연예술계 관광 자원화 지원 사업' 평가에서 최우수등급과 음악 분야 1위라는 성적을 얻기도 했다.

올해 역시 대한민국 오페라계 화제의 중심에는 대구오페라하우스가 있었다. 이번 시즌에는 글록의 오페라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파우스트>, <안드레아 셰니에>의 뉴 프로덕션을 통해 지금까지 장대한 스케일과 대구 특유의 혁신성을 담아냈다. 또한 가족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국립발레단의 <돈키호테> 등 가족, 연인이 함께하기 좋은 오페라와 다채로운 공연들도 균형있게 배치했다.

이번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는 국내외 다양한 극장의 제작·조정 작품부터 창작오페라까지 새로운 작품들로 풍성하게 채웠다. 30년 만에 한국에서 공연되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장미의 기사>, 이탈리아 페라라 시립 극장의 비발디 <광란의 오를란도>, 국립 오페라단의 베르디 <시칠리아섬의 저녁기도>, 광주시립오페라단의 베르디 <라 트라비아타>가 마지막 폐막작으로 선정되어 공연되었다.

그리고 이번 주 축제 마지막은 폐막 콘서트인 '푸치니 서거 100주년 기념-푸치니 오페라 갈라'가 장식한다. 이번 축제는 국내외 최고의 연출가와 지휘자, 그리고 최고의 퀄리티를 보장하는 오페라 극장들이 함께하였다. 특히 필자가 부러웠던 것은 상주단체인 오페라전문 디오 오케스트라와 대구 오페라 콰이어의 뛰어난 연주력이다. 한 해 40여 회 이상의 연주 스케줄을 소화해내며, 오페라 전문 오케스트라로 국내외의 지위를 유지하게 만들고 있다. 이를 통해 청년 예술가들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더불어 지역 사회와 상생해가는 대구오페라하우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2025년에는 상주단체로 발레단을 구성해 세계적인 극장으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는 계획을 관계자를 통해 들을 수 있었으며, 이제 세계적인 오페라 제작극장으로 도약하는데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융복합예술인 오페라가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의 문화 예술계를 선도하는 모습은 필자의 시선에선 부러울 따름이다. 도시를 지탱하게 만드는 원동력인 감



대구오페라하우스 무대와 관람석 전경.

동을 공연문화예술로 풀어내는 대구는 진정 행복한 중독을 발산하는 '아시아 오페라 중심도시'이다. 하지만 부러우면서도 필자는 우리의 가능성을 보았다. 이번 광주시립오페라단의 <라 트라비아타>가 광주에 이어 대구까지 전석 매진의 신화를 써 내려가며, 부족한 재원과 열악한 극장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해내는 지역의 예술 역량을 몸소 우리가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 도시에서 펼쳐지는 순수 공연 예술 중 가장 대형 프로젝트이며 지금까지 인류에게 가장 사랑을 받은 오페라는 한 도시의 문화 척도를 바라보는데 대표적인 요소이다. 대구는 오페라하우스 건립과 더불어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 등을 통해 공연문화 상품을 제작 유통 수출까지 하는 진정한 공연 예술 문화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으로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 문화도시로서 면모를 갖추려는 부산을 필두로 광주, 원주, 인천, 대전 등에 오페라 전용 극장 건립이 추진 중이다. 이번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를 통해 확인된 광주 오페라의 예술 역량과 이 지역에 추진 중인 '전문 공연장(오페라하우스)'가 건축되어 함께 시너지를 일으킨다면 광주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문화 수도로서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다.

광주와 대구는 오페라로 맺은 동맹이다. 대구가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추진하면서 겪은 여러 사례는 무엇보다 광주 '전문 공연장(오페라하우스)' 건립의 좋은 예시가 될 것이다.

광주가 오페라 제작극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있다면 광주 오페라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시장에 'K-오페라'를 전파하는 주체로 대구와 함께 협력과 경쟁을 통해 동반 성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광주의 노래가, 광주가 제작한 오페라가 감동으로 세상을 채우는 날을 고대해 본다.

광주시립오페라단 예술감독·문화학박사이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